

를 들면 한국의 빗살무늬토기의 안쪽에는 무늬를 그려 넣지 않는 반면, 소바다토기에는 무늬가 있다든가, 토기의 아가리 부분이 소바다토기의 경우에는 파도모양으로 굴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든가 하는 등, 한국의 빗살무늬토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부적 차이점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차이점만을 들어서 양자간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어떻든 이번 발굴에서 쏟아져 나온 소바다토기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한반도 빗살무늬토기문화와 공통된다는 사실은 결국 그 원류가 한반도라는 것에 이론(異論)을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전 3000년 전후에 北九州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會烟토기가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기원전 4000년부터 크게 번성하였던 한국의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한반도 빗살무늬토기인의 渡來내지는 교역품등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류가 한반도에 근접한 西唐津을 포함한 西北九州를 중심으로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종래 일본의 전통적인 토기문화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그 영향아래서 會烟土器文化가 성립,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노 태 돈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견해는 在遼寧說 在平壤說 移動說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이미 조선후기 실학자들 간에서도 보여온 바이다. 在遼寧說은 고조선의 영역의 서쪽 경계를 瀾河로 보았다. 등장시기는 管子에 보이는 조선에 관한 言及을 들어 적어도 管仲이 生存하였던 시기인 B.C.7세기 이전부터라고 규정하며, 비파형동검문화의 上限을 논거로 삼았다. 그뒤의 고조선의 변천에 관해서는, 고조선 말기의 서쪽 경계선인 溟水를 남하로 보는 說과 大凌河로 보는 說 등이 있다고 조선의 南邊에 관해서는 이를 淸川江으로 보는 說과 예성강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前者의 경우 청천강을 경계로 한 출토 유물상의 차이에 근거를 두었으며, 후자의 경우 三國史記에 보이는 馬韓 및 百濟의 北邊인 溟河가 예성강임에 의거한 것이

다. 후자의 說에선, 청천강을 경계로 그 南北 간의 출토된 유물상의 차이에 대해선, 청천강 이남지역은 고조선의 侯國이었으므로 지역적인 유물상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풀이하였다. 고조선의 수도인 王儉城에 대해선 요동의 蓋平으로 보는 주장과 요서지방의 北鎭 북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고조선의 중심지를 遼寧省에서 찾는 견해에선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實物資料를 무시한 점이다. 燕 및 秦·漢代의 長城의 동쪽 끝이나, 평양일대에서 출토되는 漢代 유물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둘째, 秦開의 동방 침공의 주요대상을 史記 匈奴傳에서 東胡라 하였는데 魏略에선 일괄해서 朝鮮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東胡=朝鮮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셋째 비파형동검문화 분포지역 즉 文化境域을 그대로 국가영역과 동일시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컨대 세형동검문화 분포지역을 단일국가의 영역으로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 문헌상으로도 중국의 하북성지역에서 한반도 사이에는 다양한 종족의 명칭이 보인다. 적어도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논급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에 있었다는 在平壤說에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청천강이남의 반도 서북지역과 연해주 남단에 이르는 반도 동해안지역을 아우른 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세형동검문화의 분포지역에 의거한 것이다. 이 견해에 의거할 때 국가로서의 고조선의 上限은 전형적인 세형동검의 上限인 B.C.3세기 내지 B.C.4세기 초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魏略에서 말하는 조선이 二千里의 땅을 상실하였다는 기사는 부정된다. 한편 在平壤說에 입각하면서도, 위략의 기사를 긍정하여, 전성기 고조선의 영역을 요서지방에까지 뻗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약용의 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說은 평양이 시종일관 고조선의 중심지이면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한 위에서, 위략의 기사를 긍정하고 그리고 고조선의 마지막 중심지가 평양이었다는 점을 결합시킬 때, 移動說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세형동검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 사이의 그 문화성격상의 연속성이 이동설의 한 주요논거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세가지 說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불필요한 혼란과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사실 자체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조선의 막지막 시기의 수도인 왕검성은 위만조선의 왕검성이고 그곳에 낙랑군 조선현이 설치되었던 지점이었음은 이론이 없다. 자연 낙랑군 조선현의